

피부미용 전공 신입생의 MBTI 성격유형 및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4년 추적연구

김나영, 안미령*

삼육보건대학교 뷰티융합과 의료미용전공 교수

A Study on MBTI Personality Type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Freshmen majoring in Skin-care : 4 year follow-up study

Na-Young Kim, Mi-Ryung An*

Professor, Dept. of Beauty Convergence Medical Cosmetology Major, Sahmyook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피부전공 커리큘럼을 학습한 피부미용전공 신입생들의 MBTI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성격을 밝혀내고, 1년 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6년~2019년도까지 피부전공 신입생 261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하였고, 1년 뒤 대학생활 적응에 충실히 답변한 164부의 설문지를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부미용전공 신입생들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선호하며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일든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목적의식이 뚜렷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피부전공 신입생,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 적응도, 성격유형, 심리유형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MBTI test of freshmen majoring in skin care who studied skin care curriculum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and analyzed thei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 year later. It conducted a 4-year follow-up survey of 261 freshmen majoring in skin care from 2016 to 2019, followed by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and analyzed them using the SPSS V. 21.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s a result, freshmen majoring in skin beauty prefer a wide r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ike to understand and learn from experience, and they can see that they have many tendencies to prepare and carry out everything in advance, and to be productive and purposeful.

Key Words : Freshmen majoring in skin care, College life satisfaction, University adaptation, Personality type, Psychological type

1. 서론

글로벌 경제가 발전할수록 건강 및 뷰티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뷰티산업은 의료, 과학, 관광 분야 등과 결합하여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서비스 산업의 가장 큰 중심에 있다. 또한

K-beauty의 열풍으로 뷰티분야는 디지털, 맞춤형, 프리미엄화 등 트렌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 중 피부미용분야는 1981년 YWCA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학문적 욕구가 확산되어 1991년 전문대학교에 2년과정이 처음 신설되었다[1]. 전문학사 과정 도입에 따라 체계적

*Corresponding Author : Mi-Ryung An(hiahn02@shu.ac.kr)

Received August 26,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인 교육을 통하여 배출된 피부미용관리사들의 직업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피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입학률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2]. 하지만 이러한 발전도 잠시 2010년 들어서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피부전공자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2008년 1월 정부의 인가하에 국가자격증이 신설되었는데, 근 5년동안 피부국가 자격 응시생의 추이를 보면 2015년 자격 응시생이 13,140명에서 2019년 10,875명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3]. 그리고 2017~2020년도 대학 공시를 살펴보면 피부전공자 입학수가 D대학 80~40명, Y대학 80명~60명, Y대학 60명~30명, K대학은 60명~40명, O대학은 50~40명 등 크게는 50%~작게는 10%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2].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서 일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 는 피부전공이 타 전공에 비해 감소율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뷰티에 관련된 일반사람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공자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피부전공 학과에서는 발전 방향 모색과 함께 신입생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맞춤형 전공 비전과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신입생들은 청소년기와 다르게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4] 다른 학년에 비해 혼란과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5].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면 대학생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휴학이나 자퇴의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6] 신입생들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대한 심리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파악 및 대학생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운데 성격특성이 있는데[7] 대학교들은 학생들의 성격을 파악하여 심리를 분석하고자 MBTI 검사 도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8].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인 커리큘럼을 학습한 미용과 신입생들이 아닌, 피부전공 신입생들의 MBTI 검사를 실

시하여 학생들의 성격을 밝혀내고, 1년뒤 대학생생활 적응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피부전공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배경

2.1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C.G.Jung의 심리유형이론은 바탕으로 Myers와 Briggs가 고안한 성격유형지표이며 개인의 선천적 심리유형을 파악하는 검사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MBTI는 Table 1과 같이 4가지 기본 성형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의 방향에 따른 외향 E, 내향 I,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기능의 감각 S, 직관 N, 결정이나 선택에 관여하는 판단기능의 사고 T, 감정 F, 삶의 양식으로 표현되는 판단 J, 인식 P로 구분된다[9,10,11].

이들 4쌍의 선호지표는 Table 2와 같이 16가지 성격유형과 4가지 심리기능과 4가지 기질로 조합하여 이루어져 있다[9,10]. 4가지 심리 기능은 ST형(ISTJ, ISTP, ESTP, ESTJ), SF형(ISFJ, ISFP, ESFP, SEFJ), NF형(INFJ, INFP, ENFP, ENFJ), NT형(INTJ, INTP, ENTP, ENTJ)로 이루어져 있다.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4가지 기질은 SP기질(ISTP, ESTP, ISFP, ESFP), SJ기질(ISFJ, ESFJ, ISTJ, ESTJ), NT기질(INTP, ENTP, INTJ, ENTJ), NF기질(INFJ, ENFJ, INFP, ENFP)로 이루어져 있다[11].

2.2 대학생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 경험 및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학업적, 생활적, 행정적, 개인적 활동 부분에서 스스로 느끼는 충족 정도를 말한다[12]. 대학생의 대학생생활 만족도가 높으면 대학생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켜주고, 이후 다른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Table 1. MBTI four preferred trends

Preference Indicator	Representative Representation	Preference Indicator
E: Extroversion	Where You Get Your Energy	I: Introversion
S: Sensing	How You Take In Information	N: iNtution
T: Thinking	How You Make Decisions	F: Feeling
J: Judging	How Do You Organize Your Life	P: Perceiving

Source :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Research

Table 2. Myers-Briggs Type Indicator: The 16 personality types

ISTJ Responsible Executors	ISFJ Dedicated Stewards	INFJ Insightful Motivators	INTJ Visionary Strategists
ISTP Nimble Pragmatics	ISFP Practical Custodians	INFP Inspired Crusaders	INTP Expansive Analizers
ESTP Dynamic Mavericks	ESFP Enthusiastic Improvisors	ENFP Impassioned Catalysts	ENTP Innovative Explorers
ESTJ Efficient Drivers	ESFJ Committed Builders	ENFJ Engaging Mobilizers	ENTJ Strategic Directors

Source :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Research

2.3 대학생활 적응도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에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말한다 [13]. 하위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여러 가지 학업적 과제에 적응하는 학업적 적응,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적응, 심리적 안정을 의미하는 개인-정서적 적응, 새로운 생활 환경으로 인해 변화된 생체리듬을 파악하는 신체적 적응, 대학생활에 대한 본질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구성되어 있다 [4,8,9].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및 도구

2016년~2019년도까지 피부전공 신입생들 261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조사 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년 뒤 대학생활만족도에 충실히 답변한 총 164부의 설문지를 통계자료로 사용 하였다. 대상자는 전국 뷰티관련전공 전문 대학교 120곳 중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탐색 하였다. 그중 피부전공학과의 표준분류가 자연과학계열, 표준분류계열이 보건으로 운영 되는 서울권 1곳, 경기권 1곳을 찾았고, 순수 2년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S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2].

자료 수집은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Briggs와 Myers가 개발한 MBTI® 자동채점용을 사용 하였고, Baker와 Siryk(1984)의[14] 대학생활 만족도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age Questionnaire: SACQ)를 국내용으로 표준화한 조부경(2003)의[15]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 적응도 검사는 Baker과 Siryk(1984) 개발한 SACQ(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근거로 이윤정(2000)이 [16]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3.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피부미용 전공 신입생의 MBTI 선호지표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MBTI 성격유형에 따라 대학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MBTI 성격유형에 따라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4. 결과

4.1 NCS 기반 국가 기술 자격증 제도의 현황

피부미용 전공 신입생의 MBTI 선호지표별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먼저 MBTI 성격유형은 'ESTJ'가 24명(1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ISTJ' 21명(12.8%), 'ESFP' 20명(12.2%), 'ISFJ' 16명(9.8%), 'ISFP'와 'ESTP'가 각 15명(9.1%), 'ISTP'와 'ENFP'가 각 12명(7.3%), 'ESFJ' 11명(6.7%), 'INFJ' 5명(3.0%), 'INTP' 4명(2.4%), 'ENTJ' 3명(1.8%), 'INTJ'와 'ENFJ'가 각 2명(1.2%), 'INFP'와 'ENTP'가 각 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MBTI 심리기능유형은 'ST(감각과 사고형)'이 72명(4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SF(감각과 감정형)' 62명(37.8%), 'NF(직관과 감정형)' 20명(12.2%), 'NT(직관과 사고형)' 10명(6.1%) 순으로 나타났으며, MBTI 심리기질유형은 'SJ(보호자적 기질)'이 72명(4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SP(예술가적 기질)' 62명(37.8%), 'NF(이상가적 기질)' 20명(12.2%), 'NT(합리적 기질)' 10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MBTI 선호지표별로 분석한 결과는 외향형

(E)은 88명(53.7%)으로 내향형(I)의 76명(46.3%)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감각형(S)은 134명(81.7%)으로 직관형(N)의 30명(18.3%)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사고형(T)과 감정형(F)은 각 82명(50.0%)으로 나타났고, 판단형(J)은 84명(51.2%)으로 인식형(P)의 80명(48.8%)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Table 3. MBTI four preferred trends distribution

Division	Main items	Details	Percent age(%)
Personality type	ISTJ	21	12.8
	ISFJ	16	9.8
	INFJ	5	3.0
	INTJ	2	1.2
	ISTP	12	7.3
	ISFP	15	9.1
	INFP	1	.6
	INTP	4	2.4
	ESTP	15	9.1
	ESFP	20	12.2
	ENFP	12	7.3
	ENTP	1	.6
	ESTJ	24	14.6
	ESFJ	11	6.7
ENFJ	2	1.2	
ENTJ	3	1.8	
Psychological function type	ST (Sensing & Thinking)	72	43.9
	SF (Sensing & Feeling)	62	37.8
	NT (iNtrution & Thinking)	10	6.1
	NF(iNtrution & Feeling)	20	12.2
Psychological temperament	SJ(guardian)	72	43.9
	SP(Artisan)	62	37.8
	NF(Idealist)	20	12.2
	NT(Rational)	10	6.1
Preference Indicator	Extroversion(E)	88	53.7
	Introversion(I)	76	46.3
	Sensing(S)	134	81.7
	iNtrution(N)	30	18.3
	Thinking(T)	82	50.0
	Feeling(F)	82	50.0
	Judging(J)	84	51.2
Perceiving(P)	80	48.8	
Total		164	100.0

4.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대학 적응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KMO값이 0.917,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chi^2=637.713(df=15, p=0.000)$ 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70.868%로 나타났다. 즉, 요인 1(70.868%)은 '대학 적응'으로 명명하였다. 총 1개 요인의 적재치는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도는 0.60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Validation of feasibility and reliability for college adaptation

Question		Ingredient
		Factor1
Factor1 College Adaptation	Physical adaptability	.910
	Academic adaptability	.839
	Social adaptability	.839
	Personal emotional adaptability	.828
	College affection level	.817
	College life adaptation degree	.813
	Eigenvalue	4.252
Distributed description(%)		70.868
Cumulative variance description(%)		70.868
Confidence(Cronbach's α)		.914

4.3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할 만족도 차이

다음은 MBTI 성격유형에 따라 대학생할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현재 대학생할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 61명(37.2%), '보통' 94명(57.3%), '불만족' 9명(5.5%)으로 나타나 전체 37.2%가 현재 대학생할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BTI 성격유형에 따라서는 먼저 선호지표별 감각형(S)/직관형(N)과 심리기능유형, 심리기질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먼저 감각형(S)/직관형(N)에 따라서는 직관형(N)의 경우 감각형(S)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 대학생할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기능유형에 따라서는 NT이나 NF의 경우 ST이나 SF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기질유형에 따라서도 NF이나 NT의 경우 SJ이나 SP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current college life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s

No	Assignment	Assignment			Time
		Unsatisfactory	Ordinary	Satisfaction	
Preference Indicator	Extroversion (E)	5(5.7)	53(60.2)	30(34.1)	.786 (.675)
	Introversion (I)	4(5.3)	41(53.9)	31(40.8)	
	Sensing(S)	9(6.7)	83(61.9)	42(31.3)	11.491** (.003)
	iNtrusion(N)	0(0)	11(36.7)	19(63.3)	
	Thinking(T)	2(2.4)	52(63.4)	28(34.1)	4.251 (.119)
	Feeling(F)	7(8.5)	42(51.2)	33(40.2)	
Psychological function type	Judging(J)	4(4.8)	53(63.1)	27(32.1)	2.350 (.309)
	Perceiving (P)	5(6.3)	41(51.3)	34(42.5)	
Psychological temperament	ST(Sensing & Thinking)	2(2.8)	49(68.1)	21(29.2)	17.399** (.008)
	SF(Sensing & Feeling)	7(11.3)	34(54.8)	21(33.9)	
	NT(iNtrusion & Thinking)	0(0)	3(30.0)	7(70.0)	
	NF(iNtrusion & Feeling)	0(0)	8(40.0)	12(60.0)	
Total	SJ(guardian)	4(5.6)	47(65.3)	21(29.2)	12.669* (.049)
	SP(Artisan)	5(8.1)	36(58.1)	21(33.9)	
	NF(Idealist)	0(0)	8(40.0)	12(60.0)	
	NT(Rational)	0(0)	3(30.0)	7(70.0)	
Total		9(5.5)	94(57.3)	61(37.2)	

*p<.05, **p<.01

4.4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

다음은 MBTI 성격유형에 따라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4.4.1 전반적인 대학 적응

전반적인 대학 적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Overall college adaptation

Sortation		Average (M)	Standard deviation (SD)
College Adapt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degree	3.45	1.023
	Academic adaptability	3.32	.791
	Social adaptability	3.40	.834
	Personal emotional adaptability	3.38	.817
	College affection level	3.49	.825
	Physical adaptability	3.27	.768
Total		3.39	.708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 애착 적응도'(M=3.4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도'(M=3.45), '사회적 적응도'(M=3.40), '개인 정서적 적응도'(M=3.38), '학업적 적응도'(M=3.32), '신체적 적응도'(M=3.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대학 적응은 평균 3.39점으로 나타났다.

4.4.2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4.4.2.1 외향형(E)/내향형(I)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

외향형(E)/내향형(I)에 따라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대학 적응의 하위문항별 개인 정서적 적응도, 대학 애착 적응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5), 내향형(I)의 경우 외향형(E)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정서적 적응도, 대학 애착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University adaptation difference according to E/I

Sortation	Extroversion (E)		Introversion (I)		t-value	p
	M	SD	M	SD		
College life adaptation degree	3.41	1.110	3.49	.916	-.484	.629
Academic adaptability	3.28	.843	3.37	.727	-.680	.497
Social adaptability	3.34	.908	3.47	.739	-1.016	.311
Personal emotional adaptability	3.25	.874	3.54	.720	-2.292*	.023
College affection level	3.38	.901	3.63	.709	-2.004*	.047
Physical adaptability	3.19	.814	3.36	.706	-1.351	.179
Total	3.31	.786	3.48	.598	-1.514	.132

*p<.05

Table 8. University adaptation difference according to S/N

Sortation	Sensing(S)		iNtrution(N)		t-value	p
	M	SD	M	SD		
College life adaptation degree	3.37	1.015	3.80	.997	-2.125*	.035
Academic adaptability	3.25	.760	3.67	.844	-2.682**	.008
Social adaptability	3.26	.765	4.03	.850	-4.895***	.000
Personal emotional adaptability	3.31	.797	3.73	.828	-2.637**	.009
College affection level	3.43	.826	3.80	.761	-2.276*	.024
Physical adaptability	3.16	.707	3.73	.868	-3.350**	.002
Total	3.29	.664	3.79	.765	-3.622***	.000

*p<.05, **p<.01, ***p<.001

Table 9. University adaptation difference according to T/F

Sortation	Thinking(T)		Feeling(F)		t-value	p
	M	SD	M	SD		
College life adaptation degree	3.38	1.014	3.51	1.033	-.839	.403
Academic adaptability	3.18	.788	3.46	.773	-2.302*	.023
Social adaptability	3.27	.817	3.54	.834	-2.080*	.039
Personal emotional adaptability	3.17	.750	3.60	.829	-3.456**	.001
College affection level	3.39	.843	3.60	.799	-1.617	.108
Physical adaptability	3.15	.687	3.39	.828	-2.053*	.042
Total	3.26	.678	3.52	.718	-2.387*	.018

*p<.05, **p<.01

4.4.2.2 감각형(S)/직관형(N)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
 감각형(S)/직관형(N)에 따라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대학 적응과 하위문항별 대학생활 적응도,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개인 정서적 적응도, 대학 애착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직관형(N)의 경우 감각형(S)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대학 적응과 하위문항별 대학생활 적응도,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개인 정서적 적응도, 대학 애착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2.3 사고형(T)/감정형(F)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
 사고형(T)/감정형(F)에 따라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대학 적응과 하위문항별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개인 정서적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감정형(F)의 경우 사고형(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대학 적응과 하위문항별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개인 정서적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2.4 판단형(J)/인식형(P)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
 판단형(J)/인식형(P)에 따라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결과 판단형(J)/인식형(P)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4.4.2.5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
 심리기능유형에 따라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대학 적응과 하위문항별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개인 정서적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NF의 경우 ST, SF, N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대학 적응과 하위문항별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NF의 경우 ST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정서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Table 10. University adaptation difference according to J/P

Sortation	Judging(J)		Perceiving(P)		t-value	p
	M	SD	M	SD		
College life adaptation degree	3.44	1.010	3.45	1.042	-.059	.953
Academic adaptability	3.27	.797	3.38	.786	-.819	.414
Social adaptability	3.39	.878	3.41	.791	-.150	.881
Personal emotional adaptability	3.42	.839	3.35	.797	.521	.603
College affection level	3.51	.871	3.48	.779	.285	.776
Physical adaptability	3.32	.809	3.21	.724	.907	.366
Total	3.39	.741	3.38	.676	.123	.902

Table 11. University Adaptation Differences by Psychological Function Types

Sortation	ST (Sensing & Thinking) (a)		SF (Sensing & Feeling) (b)		NT (iNtrution & Thinking) (c)		NF (iNtrution & Feeling) (d)		F-value	p	Post Hoc
	M	SD	M	SD	M	SD	M	SD			
College life adaptation degree	3.35	1.023	3.39	1.014	3.60	.966	3.90	1.021	1.703	.168	-
Academic adaptability	3.17	.805	3.34	.700	3.30	.675	3.85	.875	4.138**	.007	a,b,c/d
Social adaptability	3.22	.809	3.31	.715	3.60	.843	4.25	.786	9.838***	.000	a,b,c/d
Personal emotional adaptability	3.13	.768	3.52	.784	3.50	.527	3.85	.933	5.631**	.001	a<d
College affection level	3.38	.879	3.48	.763	3.50	.527	3.95	.826	2.614	.053	-
Physical adaptability	3.11	.683	3.23	.734	3.40	.699	3.90	.912	6.219**	.001	a,b,c/d
Total	3.22	.692	3.38	.626	3.48	.547	3.95	.822	6.062**	.001	a,b,c/d

p<.01, *p<.001

Table 12. University adaptation differences by psychological temperament type

Sortation	SJ (guardian) (a)		SP (Artisan) (b)		NF (Idealist) (c)		NT (Rational) (d)		F-value	p	Post Hoc
	M	SD	M	SD	M	SD	M	SD			
College life adaptation degree	3.35	.981	3.39	1.061	3.90	1.021	3.60	.966	1.703	.168	-
Academic adaptability	3.17	.732	3.34	.788	3.85	.875	3.30	.675	4.138**	.007	a,b,c/d
Social adaptability	3.26	.805	3.26	.723	4.25	.786	3.60	.843	9.684***	.000	a,b,c/d
Personal emotional adaptability	3.32	.802	3.29	.797	3.85	.933	3.50	.527	2.743 [†]	.045	a,b<d
College affection level	3.42	.852	3.44	.802	3.95	.826	3.50	.527	2.412	.069	-
Physical adaptability	3.18	.718	3.15	.698	3.90	.912	3.40	.699	5.946**	.001	a,b,c/d
Total	3.28	.678	3.31	.653	3.95	.822	3.48	.547	5.466**	.001	a,b,c/d

[†]p<.05, **p<.01, ***p<.001

4.4.2.6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

심리기질유형에 따라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대학 적응과 하위문항별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개인 정서적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NF의 경우 SJ,

SP, N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대학 적응과 하위 문항별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NF의 경우 ST, SP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정서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5.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4년에 걸쳐 피부전공 신입생들의 MBTI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성격을 밝혀내고, 1년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피부전공자의 MBTI 성격유형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상담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없이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언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의 MBTI 16가지 성격유형 중 ESTJ(14.6%)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STJ(12.8%)와 ESFP(12.2%)로 나타났다. ESTJ 유형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유형으로 보건계열과 의과대생, 치과대생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17]. 미용학과를 대상으로 발표된 MBTI유형을 살펴보면, 임소연(2006)은 INFJ와 ESFP[18], 이동건(2008)은 ESFP형이[19], 송서현(2019)에서는 ESFJ형이[10] 가장 높게 나타났다[20]. 이는 미용관련 학과내에서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미용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피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미용학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모두 불일치 하는 것으로 보아 연도별로 연구 주제 및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피부전공 신입생 심리기능유형에서는 ST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SF, NF, NT로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부전공 학생만을 대상으로 MBTI 성격분석 연구를 한 선행논문이 없기 때문에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보건계열을 대상으로 발표된 선행논문 결과와 일치한다[17,21]. 이는 피부전공분야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단위편제 분류체계표에 의하면 대계열-자연과학계열, 중계열-보건, 소계열-피부미용으로 되어 있어 보건계열학생들과 같은 결과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ST형은 실질적유형으로 감각을 통해 수집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는 유형인데[22], 이는 피부타입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부미용분야에 어느 정도 적합한 기능유형이라 할 수 있다.

피부전공 심리기질유형은 SJ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SP, NF, NT순으로 나타났다. SJ형은 보호자적 기질을 보이는 것으로 소속과 봉사를 중시하며, 정보를 오감으로 받아들여 목표를 설정하는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22]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 피부미용사에게 알맞은

심리 기질유형이라 할 수 있다. 각 지표별 선호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외향성이 내향형보다, 감각형이 직관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고형과 감정형은 동일하였고, 판단형이 인식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 차이는 37.2%가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직관형(N)의 경우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능 유형으로 NF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NF형은 사고형 성향으로 명확한 학습목표와 학습과정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10]. 또한, 심리기질 유형에서는 NF와 NT형이 만족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NF형과 NT형은 도전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는 탐구형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통하여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23].

4가지 선호지표별로 MBTI성격유형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39점으로 나타났다. 먼저, 내향형(I)이 외향형(E)보다 상대적으로 개인 정서적 적응도, 대학 애착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직관형(N)이 감각형(S)보다 대학생활 적응도,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개인 정서적 적응도, 대학 애착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감정형(F)이 사고형(T)에 비해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개인정서적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형(J)과 인식형(P)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기능 유형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에서는 NF(직관과 감정형)가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인 정서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기질 유형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에서는 NF가 학업적 적응도, 사회적 적응도,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피부전공 신입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 생활 만족도와 대학 적응도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부미용전공 신입생들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선호하며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목적의식이 뚜렷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4].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피부전공자들의 MBTI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선호지표를 참고하여 피부전공 신입생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시 2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피부전공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의 결과를 국내 피부전공 신입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피부전공 신입생을 대상으로 4년 동안의 추적 조사를 통해 피부전공 학생들만의 MBTI성향과 대학적응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미용의 모든 분야 신입생을 대상으로 표집대상을 다양화하여 집단별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미용전공 학생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상담 인프라 보강을 통한 학생상담 내실화 구현과 개개인 맞춤형 학생지도 및 대학생활의 질적 향상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J. K. Hong. (200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Sphere of Esthetology as a Discipline.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7(4), 385-395.
- [2] Higher Education in Korea. (2020). *Public Disclosure information. Acceptance rate of new student(university)*. (Online). <https://www.academinfo.go.kr/index.do?lang=en>
- [3]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20). *Skilled workers by job field*. Status of qualifications of skilled workers by job area. (Online). <http://www.c.q-net.or.kr>
- [4] Y. J. Kim.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sis requesting a master's degree. Kyung Hee university, Seoul.
- [5] J. H. Park & H. S. Kim. (2009).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mpus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1), 125-144.
- [6] K. W. Kim & Y. H. Jo. (2011).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197~218.
- [7] C. S. Kim. (2019). The Effects of Personality Types Dental Hygienist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7), 176-184. DOI : 10.22156/CS4SMB.2020.10.07.176
- [8] J. A. Han. (2011). Relevance of the Preferring Color & Tone and Personality Type from MBTI by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7(1), 641-652.
- [9] H. J. Jang. (2018). MBTI Personality Typ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an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3), 486-498. DOI : 10.5392/JKCA.2018.18.03.486
- [10] S. H. Song. (2019). A Study on College Life Stress of Freshmen in Cosmetology Department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5(6), 1450-1459.
- [11] G. J. Suh. (2016). *An exploratory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MBTI personality preference and U&I learning type*. thesis requesting a master's degree. Sogang university, Seoul.
- [12] Y. J. Lee. (2012).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level on campus-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sis requesting a master's degree. HanYang university, Seoul.
- [13] R. S. Lazarus. (1976). Pattern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Journal of Psychology* 4(3), 96-113..
- [14] W. R. Baker & B. Si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15] B. K. Jo. (2003). *Actual condi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sis requesting a master's degree. SungKyun university, Seoul.
- [16] Y. J. Lee. (2000).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thesis requesting a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7] S. Kim, J. H. Kim & Y. R. Hur. (2005). A Proposal on Educaion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7(2), 107-120.

- [18] S. Y. Lee & J. H. Jin.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of Beautytherapy Department Students and their Career Selection.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9(1), 155-164.
- [19] D. G. Lee. (2008). *A Study on the Hair Preference Through MBTI Character Types*. thesis reauesting a master's degree. Hannam university, Daejeon.
- [20] S. Y. Koh. (2020). A Comparative Study of Characteristics of the Beauty Major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3), 336-344.
DOI : 10.5392/JKCA.2020.20.03.336
- [21] S. J. Yune & K. H. Park.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 academic achievement of undergraduate and medical specialty choice of residents: a 5-year follow-up stud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391-299.
DOI : 10.35873/ajmahs.2018.8.7.039
- [22] B. R. Kang. (2018). *Relationship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s and Focusing Manner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thesis reauesting a master's degree.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3] Y. J. Lee & J. Y. Jeong. (2013).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Learning Style on the of Learning Flow. *Asian Journal of Education* 14(1), 243-273.
DOI : 10.15753/aje.2013.14.1.010
- [24] S. A. Lee. (2018).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MBTI Personality Type and Differences in Learning Methods*. thesis reauesting a master's degr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김 나 영(Na-Young Kim)

[정회원]



- 2019년 9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뷰티융합과 의료미용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의료미용, 화장품
- E-Mail : imzero@shu.ac.kr

안 미 령(Mi-RYung An)

[정회원]



- 2004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피부건강관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의료미용, 화장품
- E-Mail : hiahn02@shu.ac.kr